

성수동을 중심으로 재즈 라운지, 미술 전시장, 카페, 음식점, 맥주펍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TPZ라는 크리에이티브 기획사가 있어. 회사명 TPZ는 'Team Positive Zero'의 줄임말인데, 생산성은 제로, 그렇지만 삶의 행복을 더해주는 사업이므로 포지티브라는 의미야. 이 시대의 철학을 반영하는 말 아닐까?

오늘은 돌아가는 길에 '쓸모없는 것의 쓸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렴.